

캄부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라고 합니다. 캄부오님 항상 저를 지켜봐주시어
다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일 매일 기도나 경배나 찬송을 하지 않아서
캄부오님께 저 마음(리)을 전해드릴수 없었네요.. 해야지 해야지 해도 안되네요..

저번주 목요일에 영아와 성지에 올라갔는데요.. 성지 언위에서 보는 천성공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올라가는게 힘들었지만 내려오 나서 개운 했어요.

캄부오님께서는 저보다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전 사지 않을 해도 힘이 살고 그러네요.

캄부오님께서는 하신 일들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모습이 있었겠지요? 저는 캄부오님과 하나님께서 업으셨다면 벌써 죽어있었을지도
몰라요. 1학년 인가 2학년때 차에 치일 뻔 했는데 다행히 치이지 않았어요!

전 그후 생각해봤는데 언제나 방방하면 한년간의 일이 크레일에나게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캄부오님! 캄부오님께서는 위험하신 일이 많으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왔나요? 저라면 위워서 아무것도 못했을거 같은데요..

하지만 포는 안했을까 같아요.. 저의 집에서 천성공이 살보이는데요.. 기쁨 천성공을

볼때 캄부오님께서 제말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방에 천성공이 환하거나 그럴때도
캄부오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번년도에 중학생이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공부도 어려운 거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전 포기는 하지 않을거예요.. 캄부오님께서도

절 도의주될거죠?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할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중학생 때 생활을 바꿔볼까도 해요 기도도 하고 경배 등등..

항학인데.. 너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 공부를 모든것을 열심히 해서 저 꿈인 선생님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거예요.. 그리고

이세상이 동일하고 체험 바뀌는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지금까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도 감사하지만요 캄부오님께서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정말로 2017년에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제가 무슨 일을 포기하려 한다면 옆에서 포기하지마! 라고 해주셨으면 해요!
언제나 저 옆에 계시길래요. 매일 매일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10일 은주 올림♡

